



손흥민이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마친 뒤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최고의 축구 스타는 'SON'

현 축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토트넘), 본격적으로 유럽과 시대를 연 박지성, 1970~1980년대 독일을 주름잡은 차범근 가운데 최고의 선수는 누구일까.

영국 스포츠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18일(현지시간) 한국 축구 역대 최고 선수 10인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을 맨 위에 뒀다.

기브미스포츠는 "손흥민은 한국에서 전국적인 사랑을 받지만 세계적인 슈퍼스타이기도 하다"며 손흥민의 각종 기록을 조명했다.

유럽 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은 클럽팀 소속으로 606경기에 출전, 227골을 기록했다. A매치에는 127경기에 나서 48골을 터뜨렸다.

기브미스포츠는 "손흥민은 문전에서 파괴적인 효율성과 리더십으로 역대 최고 한국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에 이은 역대 2위 선수로는 차범근을 뽑았다.

매체는 "다른 한국 선수가 유럽 무대에

영 기브미스포츠 선정... "문전의 파괴력 뛰어나" 유럽 진출 길 닦은 차범근 2위·박지성 3위에 올라



차범근

박지성

김민재

서 활약할 길을 닦은 선구자였다"고 평가하며 차범근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준 활약을 조명했다.

3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잉글랜드) 등에서 활약한 박지성이 이름을 올렸다.

박지성을 놓고 '유럽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표

현한 기브미스포츠는 그가 소속팀과 국가대표팀 모두에서 활약했다고 꼽았다.

네 차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우승과 한 차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뿐 아니라 2002 한일월드컵 4강,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월드컵 16강 진출도 이끌었다고 전했다.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을 이어 4위를 차지한 선수는 현 국가대표팀 수비의 핵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였다.

기브미스포츠는 "김민재는 유럽 최고의 수비수 가운데 한 명"이라며 "나폴리(이탈리아)는 김민재의 활약 덕에 30년 만에 첫 리그 우승을 일궜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30년 만이라 서술했으나 2022~2023시즌 김민재가 공헌한 나폴리의 우승은 1990년 이후 33년 만이었다.

5위로는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측면 수비수 이영표가 선정됐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핵심이었던 센터백 홍명보가 6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한 기성용(FC서울)이 7위로 뒤를 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가대표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황선홍이 8위, K리그의 '전설'로 꼽히는 공격수 이동국이 9위를 차지했다. 10위에는 설기현이 이름을 올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정몽규 축구협회장 AFC 감투 회원협회위 부위원장에 선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027년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 산하 상설위원회인 '회원협회위원회'(Associations Committee) 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AFC가 공식 서한으로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바레인) 회장의 추대와 집행위원들의 승인을 통해 정 회장의 부위원장 선임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회원협회위원회는 AFC가 운영하는 16개의 상설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AFC와 각 회원국 협회 사이 관계를 관리하고 논의하는 기구로 현재 하젠 하이다르 레바논축구협회 회장이 위원장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33회 AFC 총회에서 치러진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축구 외교 무대에서 물러났다. 최근 복귀했다.

지난 5월 제34회 AFC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자신의 책을 인판티노 회장에게 선물한 정 회장은 당시 FIFA를 통해 "우리가 한국의 축구 현실, 아시아와 전 세계 축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에세이 '축구의 시대-정몽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4월5일 경기도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경기에서 선수들을 격려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30년'을 출판한 정 회장은 최근 올림픽이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잔디 인판티노 FIFA 회장도 만났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막판 5타 잃어... 김주형 시즌 조기 마감

"영덩이를 걷어차진 기분"

19일(한국시간)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50위에 그쳐 페덱스컵 랭킹 51위로 밀리면서 플레이오프 2차전 진출에 실패한 김주형(사진)의 뼈아픈 소감이다.

김주형은 페덱스컵 랭킹 43위로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페덱스컵 랭킹 50위 이내 선수만 출전하는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 출전이 유력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김주형은 15번 홀까지 4타를 줄여 페덱스컵 랭킹 50위 이내는 안정

하지만 16번 홀(파5)부터 18번 홀(파4)까지 막판 3개 홀에서 보기가 더불보기-더

블보기를 적어내며 무너졌다.

16번 홀에서는 벙커에서 한 번에 탈출하지 못했고 17번 홀에서는 아이없는 쇼트게임 실수가 겹쳤다. 18번 홀에서는 티샷을 물에 빠뜨렸다. 막판 3개 홀에서 5타를 잃은 김주형은 1오버파 7타를 쳐 공동 50위(1언더파 279타)로 대회를 마쳤다.

페덱스컵 랭킹은 51위로 떨어졌다. 플레이오프 2차전 진출에 딱 한 걸음 모자랐다. 김주형은 플레이오프 2차전 진출에 실패하면서 내년 시즌 PGA 투어 특급 대회인 시그니처 이벤트에 출전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

LIV 골프에 대해 도입한 시그니처 이벤트 8개 대회는 총상금 2000만 달러에 이른다. 상금만 보면 메이저대회 못지않다. 김주형은 이런 황금의 열쇠를 막판 실수로 놓쳤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